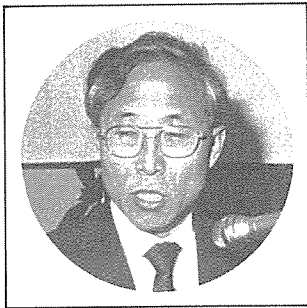


國際협력과 科學技術정보교환

# “政府의 財政지원이 關鍵”



金 東 漢

〈浦項工大교수〉

科學技術은 一國의 國力과 생활수준에 직결되는 産業經濟發展의 원동력이 된다. 이 때문에 모든 나라는 경쟁적으로 自國의 技術開發과 이를 뒷받침하는 基礎科學育成에 全力을 경주하고 있다.

科學技術은 한나라의 가장 중요한 無形의 資產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環境下에서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로 놀라운 經濟成長과 産業發展을 이룩하였고, 이제 先進國隊列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에 到達하여 있다.

그러나 한 科學技術人으로서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여 볼 때, 이제부터가 問題라고 본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産業經濟의 신속한 발전과 고도의 성장은 우리의 힘으로 개발된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外國에서 개발된 기술을 많은 技術移轉費를 지불하고 도입하여 生産에 直接 適用시킴으로써 이룩한 즉, 技術移轉에 의한 産業發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技術導入에는 많

은 問題가 대두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잘 안다. 自由競爭經濟의 이념과 체제하에서 自由貿易을 주창하는 美國은 自國의 막대한 貿易赤字와 開發途上國家들의 기술추격에 직면하여 최근에 와서 産業保護라는 명분아래 保護主義 政策으로 전향하고 科學技術의 유출을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環境하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도 하루 속히 우리의 힘으로 科學技術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獨創的 技術의 개발은 직접적으로는 우리 나라 産業發展과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겠지만 또한 우리가 國際社會에서 능동적인 國際協力과 科學技術交換을 통해 外國에서 개발된 科學技術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손에 무엇이 있을때 비로소 교환이나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獨創的 技術開發과 관련하여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科學技術의 개발이란 그 기반

을 基礎科學에 두는 것으로써 基礎科學의 육성  
과 발전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科學技術의 交換과 國際協力과 관련하여 그  
간 科總이 기여한 바를 小考해 보기로 한다. 科  
總이 創立된 것은 1966년으로서 6.25動亂의 폐  
허속에서 國家再建의 鼓動과 더불어 창립된 수  
많은 國內 科學技術團體를 有機的으로 연결시  
키며 會員團體들의 學術활동을 효율적으로 지  
원하여 基礎科學의 육성을 진작시킴으로써 우  
리나라 科學技術發展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하  
는 데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時代의 변천과 더불어 그 活動範圍와  
事業內容도 점차 확대되었다. 科學技術의 國際  
交流와 협력이라는 時代的 욕구에 부응하여 科  
總은 海外에 나가있는 많은 우리나라 고급두뇌  
의 활용이라는 점에 안목을 두고 다수의 海外  
韓國人 科學技術者들을 정기적으로 國內에 초  
청하여 國內 科學技術人들과의 대화와 科學技  
術情報의 교환의 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事業의 일환으로 第1次科學技術綜合  
學術大會가 1974년에 개최되었고, 1987년에 第  
10次大會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봄과 가을에는  
4~5개 特定科學技術분야를 선정하여 워크숍을,  
그리고 여름에는 夏季심포지움을 개최하여 各  
分野의 著名한 海外韓國科學者들을 초청하여  
세미나, 技術諮問 및 科學討論등을 통하여 國內  
科學技術者들과의 科學技術情報交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979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科總의 事業을  
制度化한다는 次元에서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  
協力委員會가 구성되었으며 이는 1984년에 확  
대 개편되어 현재의 國際協力委員會로 발전하  
였다. 따라서 國際協力委員會는 그 前身인 國內  
外韓國科學技術者協力委員會의 기능을 발전적  
으로 승계한 것으로 國際機關 및 在外韓國科學  
技術者協會와 정보교환, 國際學術會議의 개최,  
國際學術團體와의 기술교류 및 科學技術協力,  
海外 科學技術者 초청 활용 및 유치 등을 그  
主事業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委員會는 委員  
長과 14명의 委員으로 구성되어 있다.

國際協力委員會 사업의 일환으로 科總에서  
近年에 주최한 주요 國際學術會議를 열거하여  
본다면 前述한 바 있는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매 3년에 1회)와 春秋季워크숍  
및 夏季심포지움 외에 第4次東南亞太平洋地域  
工學團體聯合總會(1985년), 제1回國際大氣環境  
學術會議(1985년), 第5次國際水理學會亞細亞太  
平洋地域學術會議(1986년)등을 들 수 있다.

또 科總은 在外韓國科學技術者誘致센터를 설  
치하고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등 在外科協을  
협력창구로 설정하고 韓國科學技術人力の 國內  
誘致를 主導해 온바 1974년 이래 1,630명을 一  
時 또는 永久 誘致하는데 성공하였다.

科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科學技術情報의 교류에 협력하고 있는 在外韓  
國科學技術者協會를 개관하여 보면, 在美韓國科  
學技術者協會를 비롯하여 在歐, 在캐나다, 在日  
科協이 있으며, 政府는 이를 共產圈 國家들에게  
까지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在中韓國  
科學技術者協會와 같은 단체의 창립을 지원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모나 活動面에서 他 在外科協의 추종을 불  
허하는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는 美國全域에  
42개의 支部와 5개의 分會를 가지고 있는 방대  
한 기구의 科學技術團體로서 會員數가 5000여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 協會는 1971년 12월 11일에 美國의 首都  
워싱턴에 있는 원저파크호텔에서 약 70명의 在  
美科學技術人들이 모여 創立總會를 갖고 발족  
한 이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  
렀는데, 그 協會의 여러 事業中에서 科總과 밀  
접한 유대를 갖고 추진하는 事業을 간추려 보  
면 科總과 共同으로 主催하는 前述 한 바 있는  
國內外綜合學術大會와 워크숍 및 심포지움, 그  
리고 在美韓國科學技術者 國內誘致 在美窓口役  
外에 在美韓國科學技術·技能人士 人名錄(産業  
研究院과의 共同事業)의 發刊과 國內에서 수행  
한 研究課題의 평가와 조언, 訪美韓國科學人士  
들의 特定 技術情報發掘 協助事業등을 들 수 있  
다.

현재 在外韓國科學技術者協會에 가입한 會員數는 7,540명을 헤아리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自己分野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世界的 碩學들이며 모두가 눈부신 활동을 통해서 科學技術人으로서의 韓國人의 근면성과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은 祖國에 대한 남다른 愛國心을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개발한 科學技術이 故國의 産業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야 말로 우리가 언제고 활용할 수 있는 科學技術의 귀중한 자원이다.

여기서 지난 1987년 7월 6일에서 7월 18일간에 仁川에 位置한 仁荷大學校에서 개최한 第10次國內外綜合學術大會를 평가해 보며는 발표된 論文數가 334편이나 되었으며 參加人員이 무려 4000여명을 넘었다.

이중에는 172명의 在美科學技術者, 40명의 在日 그리고 39명의 在歐科學技術者가 참여한 명실상부한 國際綜合學術大會로서 이를 기회로 해서 一時 歸國한 在外科學技術者는 356건의 기술지도와 자문 및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실로 놀라운만한 技術情報 교류의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政府出捐研究所와 企業體 研究所는 이 대회장소에 유치센타를 설치하고 在外科學者들의 취업상담에 임하는 등 해외의 우리 科學技術者들의 國內誘致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産業經濟는 그간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이루고 韓國은 이제 新興富國으로 탈바꿈 했다. 그러나 이러한 産業發展은 우리의 기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해외로부터 高價의 技術移轉費를 지불하고 도입한 기술에 의존하였다. 우리의 科學技術은 아직도 脆弱狀態를 탈피하지 못한 形편으로 韓國의 富興은 내실이 없는 外殼상의 것으로 잘못하면 砂上樓閣과도 같은 것이 되고 만다.

우리가 앞으로 극심한 國際競爭에서 이겨나가는 길은 하루 속히 獨創的인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가지고 先進國들과 능동적인 상호교

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과학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제는 科學技術은 돈만 가지고 사 올 수는 없다.

우리 손에 무엇을 가지고 Give-and-Take의 原則에 따라 상호교환 함으로써만 우리의 원하는 기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科學技術의 自體개발은 基礎科學의 확고한기반이 전제하는데 政府는 뒤 늦게 남아 이를 인식하고 1989년을 基礎科學振興의 元年이라 定하고 基礎科學 研究費를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여러가지 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또한 人力이나 財源이 부족한 우리는 國家的次元에서 어느 特定分野의 科學技術을 개발 하겠다는 分명한 目標를 설정하고 產學研이 긴밀한 협력아래 여기에 초점을 맞추워 집중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때 무엇이 얻어지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祖國의 科學技術과 産業發展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수많은 해외科學技術者들이 있다. 이들은 각己 自己專攻分野의 축적된 기술과 最尖端의 科學技術情報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海外高級科學人力의 효율적인 활용은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의 科學技術開發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科總은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國際協力과 科學技術情報交換事業을 再評價하고 우리 國內實情과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으로 이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政府는 이에 따르는 財政的 支援에 인색함이 없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科學技術情報交換은 과거의 美國 일변도에서 벗어나 汎世界的으로 확대시킴이 바람직하다. 지난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우리의 國威도 이제는 美國을 중심으로 한 自由陣營에서 뿐만 아니라 全世界로 신장되었으니 이러한 시대적 國際社會的 變化에 부응하는 새로운 國際協力과 科學技術交換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